

전남 임산부·난임부부·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본격 공급

도, 건강먹거리 사업...대상자 건강증진·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기대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나섰다.

전남도는 1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대상자 선정 및 선정, 주문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가운데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2천798명에게 사업비 13억원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천

원 포함) 상당의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3천명에게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전남도 자체 신규 사업이다.

‘수도권 향우 꾸러미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향우의 애환심 고취를 위해 향우 1천명에게 사업비 5억원으로 1인당 연 50만원(자부담 25만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임산부를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신청을 바라는 난임부부는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군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향우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고향(출생지) 시·군(친환경농업과)에 방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용관에서 친환경인증 받은 신선농

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해 각각 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대상자의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전남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광주농기센터, 맥류 생산성 변화·대응방안 모색

농촌진흥청 등과 심포지엄...국산밀 산업화 사례 눈길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단법인 한국맥류산업연구회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맥류 안정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밀·보리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성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 변화와 대응책(김대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최근 맥류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김상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디지털 농업현황과 맥류산업연계 발전방안(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무굴착 암기배수 시설이용 생산성 향상(정환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발표했다. (사진) 특히 광주지역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의 국산밀 산업화 우수 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우리밀 소비 촉진과 양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돈 1천원으로 우리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양동전원국시’를



열었다. 양동전원국시를 시작으로 풍암동, 화정4동, 상무1동, 농성2동 등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전원국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우리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우리밀 제품 판매장을 공학 면세점 등 7곳에 열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인 맥류의 안정 생산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식량 자급률 향상을 물론 국내 맥류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영농기 농촌일손돕기 나선다

내달 14일까지 모든 공직자 참여

전남도가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6월14일까지를 ‘농촌일손

돕기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일손돕기 중점 기간 도·시·

군·원, 시·군 등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했다. 또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손돕기 대상 농가는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 고령·영세·장애인 농가 등이다. 추진 농작업은 기계

화가 어려운 양파·마늘 수확 작업과 파실 썬기, 봉지 씌우기 등이다.

일손돕기를 위해 이동 시 교통 및 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복 착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뼈대 있는 ‘참갑오징어’ 관찰하세요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봄철 대표 수산물 전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일 “한 달간 여수 돌산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에서 봄철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참갑오징어(Sepia esculenta Hoyle·사진)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참갑오징어는 몸속에 석회질의 뼈가 있으며 뼈가 갑옷처럼 딱딱하다는 의미로 갑(甲)자를 쓴다. 참갑오징어의 ‘참’이라는 표현을 통해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공중자를 생산 연구 중이며 자원량 증대를 위해 최근 3년간 20만마리를 방류하는 등 매년 방류를 이어가고 있다.

참갑오징어는 곧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수족관 안쪽에 붙어있는 알은 물론 직접 짚듯이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양시원 기자

또한 타우린과 셀레늄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가격은 일반 오징어에 비해 비교적 높지만 맛과 식감이 일품이라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수산물이다.

국내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점차 늘어드는 수산물로 전량 어획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이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은 참갑오징어를 전략품종으로 선정해 인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컬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이삼용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시티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